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9.(목) 11:00 <3.20.(금) 조간> 배포 2026. 3. 19.(목)

바이오 M.AX 확산을 위해 바이오, AI 업계가 뭉쳤다.

-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Meet-up Day)」 개최 -
- 얼라이언스 기획 과제에 올해 230억원, 5년간 총 1,450억원 투입 계획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19.(목) 13:30, 세종대에서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Meet-up Day)」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 9월에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의 운영성과와 산업부의 '26년 얼라이언스 운영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기업·기관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140여개, 아론티어, 스탠다임 등 AI 기업 70여개를 비롯하여, 연구소. 학교, 병원 관계자 등 총 350여 명이 참여하였다.

AI 기술이 제조 산업 전반에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바이오 제조 경쟁도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기술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는 바이오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빅테크 기업과 합작 투자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6년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AI 확산을 통해 바이오 제조 역량을 총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조 AX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 내 바이오 기업과 AI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26년 바이오 프로그램형 R&D로 약 230억원(신규과제의 68%)을 우선 지원하고 5년간 총 1,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AI-소부장 기업간 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27년 바이오 앵커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바이오 제조 거점 구축사업도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바이오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산업부는 바이오 제조 공정별 핵심 AI 모델 개발 지원, 핵심 소부장 국산화, 공공 바이오 제조 인프라 구축,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4290)
		담당자	사무관	임성관 (044-203-429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Meet-up Day) 개요**

□ **(일시)** ‘26.3.19.(목) 13:30 ~ 15:00

□ **(장소)**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 C홀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 **(참석자)** 바이오 기업 139개, AI 기업 77개, 학·연·병 64개 등 총 295개(375명)

* ’26.3.13일 신청 기준

□ **(주요내용)**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26년 운영계획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 간 네트워킹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3:35	5′	■ 개회사	산업부 산업성장실장
13:35~13:40	5′	■ 축사	생명공학연구원 고정헌 부원장
13:40~13:45	5′	■ 기념 촬영	
13:45~13:55	10′	■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 운영계획	산업부
13:55~14:15	20′	■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 추진현황	김주은 교수 이은교 센터장
14:15~14:45	30′	■ 바이오 AI 적용 사례 발표	윤용규 종근당 팀장 이대승 포트레이 대표
14:45~	-	■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